

●●● 최 홍 근 한국계란유통협회장

## 생산자와 유통이 공생하는 길 마련할 터



▲ 최홍근

- 83. 부흥유통 개업
- 01. 한국계란유통연합회 회장
- 02. 기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전문위원
- 04. 농림부 장관 표창
- 04. 한국계란유통협회 초대회장

2004년 10월 28일 한국계란유통 협회가 농림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후 지난 4월 28일 서울 용산에서 협회 현판식을 가졌다.

이 같은 계란유통협회의 정식 출범은 국내 계란유통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계란 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홍근 한국계란유통협회 초대회장을 만나 계란유통협회의 현황과 역할을 알아보았다.

### 오랜 숙원과제, 사단법인 출범

지금부터 26년 전에 수도권 계란 상인 중심으로 친목단체 상인연합회가 출범한 후 3개 단체가 나뉘어져 활동을 하다가 계란유통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한 단체 필요성이 공론화되어 2001년 3개 단체가 6개월간 단체 통합협상을 벌인 결과 한국계란유통연합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대한양계협회 동의를 얻어 2004년 10월 28

일에는 농림부의 인가로 사단법인이 되었다. 최홍근 회장에 의하면 협회 조직은 회장, 감사(2명), 이사회(28명), 운영정보위원장(한진수), 경영관리위원장(박남식), 유통정보위원장(강중성), 분쟁조정위원장(정종관), 자조금관리위원장(박희중), 홍보위원장(조갑형), 회원관리위원장(이상호)과 전국 2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은 약 2,500명으로 이중 1일 1만5천개 이상 계란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1,000여 명이 한국계란유통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 지난 4월 28일 협회 창립식에 참석한 집행부(가운데 최홍근 회장)

### HACCP 갖춘 유통센터 늘어난다

최홍근 회장은 계란유통시장이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계란 매매 시장은 재래시장에서 대형매장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으며, 소비자는 판란 보다 소포장 캡슐란(10,15개)을 선택하되 양보다는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상품란(영양란, 유정란, 기능란)의 선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회장은 이 같은 소비 변화에 맞추어 생산자는 무리한 환우를 자제하고, 계란 품질저하와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노계 생산 계란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가공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자 책임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계란유통 상인들의 HACCP 갖춘 계란물류센터 신축과 생산, 저장, 운송 단계의 콜드 시스템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통단계 자조금 사업 추진한다

최회장은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산지 가격이 생산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산지 결제수단이 수표에서 현금으로 전환되고, 도매 단계 외상매출 증가로 유통인의 자금부담이 난가 상승전보다 2배 이상 커졌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유통인이 상생하도록 계란유통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안정된 수급 상황에서 유통인에게 일정한 마진이 보장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설립전까지 유통인의 소비홍보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사단법인 출범으로 계란운송 차량(5톤, 3.5톤, 2.5톤, 1톤)을 기준하여 자조금을 거출할 계획이다. 거출된 자금은 계란소비와 유통사업부문에 사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조금법 개정을 농림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최회장은 발전이 뒤쳐진 계란 유통부문에서 해야 할 일은 많다고 피력하면서 먼저 생산자와 유통인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을 180~190개에서 240개로 늘리는 소비홍보사업에 전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 김종준 과장)